

광주지역 경제 빛낸 4인 '상공의 날' 정부 표창

전학수 와이에스피 대표이사 국무총리상
김상준·조명근·박남해 등 산업부장관상
경제 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공로



전학수 와이에스피 대표이사, 국무총리 표창
김상준 산업부장관 표창, (주)에스티 대표이사, (주)에스티 대표이사, (주)에스티 대표이사, (주)에스티 대표이사

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혁신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와 해외 조립공장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공급망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 및 신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가 자동차 산업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화했으며, 낙산군, 글루텐 분해효소, SOD효소 등 차세대 기능성 원료 개발과 친환경 공법을 선도해 건강식품 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왔다. 또한 조명근 (주)에스티 에너지 ESG경영본부장은 성과·직무 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고, ESG 경영 및 사회공헌을 포함한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에스티 에너지가 지역을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산시스템의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진행된 제3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참석해 상공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여러 상공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산업훈장, 산업포장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등의 상이 주어졌다. 한편 '상공의 날'은 상공업 진흥과 상공인들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한 정부 기념일로 매년 3월에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로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상공인들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임채만 기자

광주경총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5·20인 미만 제조업 '안전 시각화 구축'
1억 미만 건설 현장 환경개선 집중 지원

광주경총은 지역 내 영세·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안전보건 전문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은 여전히 법적 의무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주경총은 실질적인 안전 관리 사각지대로 꼽히는 5·20인 미만 제조업과 공사금액 1

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 현장을 이번 사업의 집중 지원 대상으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영세 사업장의 척박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조기 정착을 돕는 실효성 있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각 업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물적 지원이 핵심이다. 5·20인 미만 제조업체에는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전보건 시각화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비용 부담으로 구비가 어려웠던 '안전보호구 및 필

수 안전 시설물'을 지원해 현장의 즉각적인 환경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사가 함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기법을 안내한다. 영세 사업장의 인력 구조 특성을 반영해 내국인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실시해 현장 작업자들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은 광주경총총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62-608-9935)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만 기자

전문건설 전남도회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 환영'

강성진 도회장 '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전남도가 발표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 개정 및 시행(2026년 4월1일)에 대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2억원 미만이던 적용대상 공사금액을 4억 3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적용 공종을 21개에서 33개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사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품을 할증하는 공종과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에 대한 산출기준 마련, 설계 시 누락되기 쉬운 공종 보완 등이 포

함된 점에서 현장 실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와 공사비 과소 산정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곧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책임 있는 시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 지역 건설업체가 적정 대가를 바탕으로 안정적

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과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성진 도회장은 "이번 설계기준 확대 개정은 집체된 지역 건설경기 속에서 전문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준 전남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 확보는 단순한 경영 문제를 넘어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공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코스피 5,100 붕괴 코스피가 이란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나올때 내려 5,050대 밀려난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24.84포인트(4.26%) 내린 5,052.46에 장을 마치며 지난 26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GICON, '콘텐츠코리아랩 창·제작 지원' 모집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31일 "광주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유망 창작자 발굴을 위해 '2026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제작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광주시 소재 창작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웹툰·웹애니·실감영상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창작자,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 등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3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창작자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며 ▲1단계 주니어 크리에이터(창·제작자) 최대 700만원 ▲2단계 부스터 크리에이터(예비·2026년 창업자) 최대 1천300만

원 ▲3단계 부스터 크리에이터(예비·창업 3년 미만) 최대 2천만원을 각각 10개 팀(사) 내외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창·제작 지원금 외에도 전문가 멘토링, 역량 강화스킬업 교육, IR 피칭,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단계 주니어 크리에이터는 4월1일부터 9일까지, 2·3단계 부스터 크리에이터는 4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는 GICON 홈페이지(www.gi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태호 기자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